海外養鷄

世界養鷄産業의 動向

〈세계 가금학회 한국지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발전하는 養鷄産業의 이모 저모를 각 나라별로 간추린 세계양계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하며 먼저 가까운 日本과 石油류 수출로 급격히 鷄産物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中東地域 여러나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日 本

日本 農林省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77年 2月末 現在 産卵鷄 飼養首數는 237,200農家에서 約 1억 5천 2백만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체 사육수수에서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가 증가한 추세이고 농가당 평균사육수수는 369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肉鷄 (브로일러)를 사육하는 농가수도 11,2%가 증가하였고 평균 농가당 사육수수는 10,110수로 나타났다. 또한1975년 8월에서 1976년 7월까지 1년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달걀 100kg 생산에 소요되는비용은26,811엔(57,6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의 생산비절감을 보였고 100수당 관리비용은 년간 393,356엔(865,400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전체 관리비용 중 사료비의 부담은 6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료가격의 인하로 인한 생산비 절감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현상이라고 한다. 또 계란 100kg의 판매가격은 1년전 28.448엔(62,590원)에서 25,752엔(56,650원)으로 하락함으로서 이기간동안 산란계 100수당 47,308엔(104,080원)의 이익은 전년도에 비하여 24%의 수익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일본농협에 따르면 전세계의 20마일 경제수역의 선포로 인하여 생선으로 만들던 여러가공품의 품귀현상에 대처할수 있는 닭고기 쏘세지인 "카마보코"라는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데 뼈를 제거한 이 닭고기 쏘세지는 kg당 100~200엔(220~440원)정도 생선인 대구로만든 가공품보다 싼가격으로 시판이 되어서 매우 성공적인 시장판매가 기대된다고 한다.

2. 中東地域

"이스라엘"에서 가장큰 七面鳥고기 생산 공장인 "하벨레회사"는 EEC(유럽공동체)

에 가장 많은 칠면조고기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EEC의 여러나라는 자기나라의 생산자들을 보호육성하기위한 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의 수입을 억제하여 이 회사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특관세(特關稅)를 부과하게 되었고 1976년 330만$까지의 수출실적을 올렸던 이 회사와 다른 "이스라엘"의 칠면조 및 닭고기 수출업체는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란

년간 석유수입을 200억$이상 올리고있는 "이란"은 3,500만 인구의 육류소비량 증가로 동 서구라파와 미국으로부터 닭고기와 계란을 수입하고 있는데 계란은 TON당 2,310$에 수입되고있고 정부가 인정하는 한 家禽生產物 수입회사에서는 5,000만$의 계란과 닭고기 수입을 계약맺을 정도로 회사들의 규모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락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금생산물 최대소비국인 만큼 정부산하기관인 이란의 肉鷄需給調節 機構 (IMO)에서는 신선한 육류의 수입과 공급에 관한 전담 업무를 맡고있고 외국수출입회사 (FTC)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수송을 위한 책임을 맡아 대량육류수입에 대한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 집 트

년간 88,000TON의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는"이집트"에서는 정부가 인가한 개인회사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있으며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고 주로 가까운 스페인, 포루투칼 등지에서 도계처리하지 않은 닭을 가져와 이집트의 도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더욱 신선한 닭고기 공급을 위한 방법을 쓰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과 이락 다음으로 큰 닭고기 수입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닭고기 수입은 1976년 260만$의 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TON당 1,250$,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1,170$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유수한 개인수입회사에서는 월 1,000TON 이상의 수입을 맡아서 하고있고 1977년 사우디 아라비아 전체 수입한 닭고기는 약 10만톤에 달했으며 가장 값이 싸고 이나라 국민들의 기호에 알맞는 닭고기는 계속 증가하는 수요추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대체로 양계산업이 번성하고있는 "시리아"에서는 국내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를 때에만 수입을 하게되는데 1977년에는 119,000$의 닭고기와 계란을 수입하였으며 주로 소비조합에서 수입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중동여러나라 중에서 가장큰 양계생산물 수입회사인 시리아의 한 수입회사는 동구 공산권으로부터 닭고기와 계란을 수입하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락, 이집트등의 수입회사에 제공하는데 이회사는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360개의 계란이 들어있는 한상자에 14$의 가격으로 들여오는데 운반비가 상자당 7$이 되어 계란 360개의 수입가격은 21$에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와같이 낮은 동구의 수출가격에 경쟁을 할 수가 없지만 동구권의 공급이 부족할때는 미국에서 360개들이 계란 한상자에 45$에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또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닭고기를 1톤당 1150$에 수출제의를 해와 현재 서구나 미국의 톤당 1,250$의 수입보다 닭고기의 신선도는 나쁘겠지만 큰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백만의 인구에 비해서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국민 일

인당 국민소득이 가장높은 "쿠웨이트"는 1975년에서 1976년까지 1년동안에 닭고기의 수입이 2.5배증가 하였고 닭고기 수입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다른 중동여러나라와는 달리 모든 수입은 개인회사에서하고있지만 20여개소의 정부운영의 수퍼마켙에서 거의 소매가격을 결정짓고 있으며 1978년에는 7,000TON의 닭고기 수입이 추정된다고 한다. 1977년 국내의 계란생산량은 전체소비의 15%정도였고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은 316개로서 미국과 같은 수치였으며 닭고기 소비량은 국민1인당 13kg으로써 영국의 12kg보다는 많지만 미국의 22.5kg 이스라엘의 30kg에는 뒤지고 있다. 닭의 사육수수는 14개의 산란계농장에서 15만수를 사육하여 년간 3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64개소의 브로일러농장에서는 6,530TON의 닭고기 생산이 쿠웨이트 양계산업의 전부라고 한다.

그러나 1977년에 항가리, 사이프러스에서 종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년 5~6백만수의 브로일러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을 갖추었고 4개소의 사료공장도 건설하였는데 모든 기술과 사료의 원료는 네델란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수입될 계획이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는국내 양계업의 육성책으로 외국수입 계란은 30개들이 한박스에 2.44$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한박스에 3.83$로서 정부가 2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나라에서 사육중인 브로일러의 능력은 도체율이 75~80%이고 52일령체중은 1.5~1.75kg, 사료효율 2.1~2.2이며 생체 kg당 판매가격은 2.26$로서 능력이 나쁜편은 아니지만 산란계의 능력은 높은 기온의 영향이 커서 년간 산란지수 200개로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못하고 있다.